

의대생 무더기 휴학·수업거부 학사운영 올스톱...대학가 비상

대학가 초비상...“정상적인 수업 불가능”
전국 의대생 누적 8753명 휴학계 제출
개강 늦추거나 실습·수업 1~3주 연기
“주말·야간 활용해 보충 수업도 진행”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수업거부에 대거 동참하면서 대학들의 학사일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개강을 늦추거나 예정된 실습·수업 일정을 1~3주 연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누적 8753명이다. 다만 이 중 중복 집계된 인원도 포함됐을 수 있다. 이틀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 가운데 34명은 휴학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휴학이 허가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과 수업 거부에 돌입하면서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수의 의대에서는 수업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예정된 수업 일정을 미루거나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경희대 의대는 개강 날짜를 1~2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과 1~2학년생들은 당초 이달 26일에 개강할 예정이었고, 본과 3학년생들은 지난 5일 이미 임상실습을 시작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 의대는 지난 19일 수업이 시작됐지만 개강을 일정 기간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학생들이 출석 미달로 유급

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말·야간을 활용해 최대한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주말에 수업을 하든, 야간에 하든 필요한 수업일수가 있으니, 규정에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고 했다. 조선대 의대도 동아대와 같은 날 개강했지만, 수업 진행이 불가해 개강일을 다음달 4일로 약 2주 미뤘다. 조선대에 따르면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대부분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남대 의대도 조선대, 전남대와 함께 학생들이 수업에 대거 불참하면서 수업 일정을 2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오늘 중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의대도 당초 계획된 수업 일정을 연기할 계획이고, 이날 중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한다. 고려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일단 예정된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

해졌다. 동국대 WISE캠퍼스(경주) 의대도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도교수들이 학생 대상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동국대는 의대생 303명 전원이 전날(20일) 휴학계를 제출했다. 학기 일정이 미뤄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학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임상 교수들은 진료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간의 스케줄이 짜여 있는데, (수업 일정과 함께)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제학회 참석 등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 출석 미달로 대거 유급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대학들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 등을 활용해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 대상 면담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학생들 개인의 휴학 결정 권한을 (대학들이) 강제로 못하게 할 순 없다”며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는 학생이든,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하는 학생이든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밟아서 졸업할 수 있도록 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5·18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공개하라”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발표 경위·책임소재·애매항 등 핵심과제가 빠져있다”며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해킹 아니고 배신감에 혼내주려”...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법원에 자필 반성문 제출...혐의 인정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후회와 사과의 뜻도 밝혔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희면기자

빅5 병원 “수술, 30~50% 연기”

수술 30% 이상 연기·응급실 대기 길어져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이틀째 이른바 대형병원인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연되는 수술 건수가 늘고 응급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의료 현장의 차질이 커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의 정도와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는 교수와 전임의 규모, 진료과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날 예정된 수술의 30% 이상, 최대 40~50%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병원은 진료과별로 환자의 응급·중증도 등을 고려해 입원·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응급·위급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E-GEN)에 접속한 결과 이날 오후 1시 기준 ‘빅5’ 병원 일반 응급실 종합상황판에는 모두 빨간불(사용 가능한 병상 수 50% 미만)이 켜져 있는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일반 응급실 병상 26개를 모두 돌렸지만 5개가 모자랐다. 세브란스병원(신촌)은 20개 병상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은 11개 중 1개만 사용 가능한 상태다. 서울성모병원은 27개 병상 중 9개, 삼성서울병원은 59개 중 24개만 사용 가능한 상태다. 이항민 대한응급의학회 회장은 “종합상황판이 실시간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병상 수가 적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인력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

에 병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빅5’ 중 한 곳의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로 특히 소아응급실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근무 강도가 더 세졌다”면서 “전공의 부족으로 이미 전문의들이 초과 근무를 하며 버텨왔는데, 이번엔 인원이 빠져 근무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인 응급실이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입원도 줄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엔 이미 ‘응급 병상이 포화돼 심정지·급성 심근경색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문이 공시됐다. 각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꽉 차면 경증·비응급 환자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공백이 달한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게 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의료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환자나 중증외상 환자 등이 몰려 전공의를 대신해 투입된 교수와 전임의들의 피로도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 추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중 71.2%(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63.1%인 7813명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김수권기자

의사 파업에 간호사들...“환자 죽이는 행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간호사에 업무 몰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직장인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라고 밝힌 A씨는 “간호사가 인턴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A씨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인력이 부족하니가 인턴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졌다”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환자 컴플레인과의사 업무를 덮어쓰는 중인데, 환자가 잘못될 경우 간호사가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우리 병원에 중환자가 많은데, 환자들

을 놔두고 나가버리면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전공의까지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큰일이다. 바로 처방하러 달려올 사람이 없어서 약도 못 준다”고 덧붙였다. 의사 파업에 대해 A씨는 “파업하려는 이유는 알겠지만, 최소한 파업을 했을 때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내놓고 나가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71.2%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 중 63.1%는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